

“성악가는 ‘노래로 연기하는 배우’ 악보에 담긴 힌트 찾을 수 있어야”

바리톤 김기훈·소프라노 임선혜
광주성악가협회, ‘마스터클래스’ 참여
김, 곡성출신...카디프 콩쿠르 우승
임, 세계적 명성 ‘고음악의 디바’

“정말 좋은 소리를 가졌는데 지금은 너무 딱딱해요. 관객들은 극장에서 성악가의 소리를 쓰나미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소리가 좋다는 것을 믿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노래를 해야합니다.” (김기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스타 성악가들이 서울의 공연장이 아닌 광주의 한 학교를 찾았다.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바리톤 김기훈(30)과 소프라노 임선혜(46)가 지난 19일 광주성악가협회 주최한 ‘제1회 마스터 클래스’(이하 마스터 클래스)에 강사로 나서 학생들의 노래를 듣고 평가와 조언을 하며 1대 1 강의를 진행했다. 마스터 클래스는 호남신학대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마스터 클래스에 앞서 김기훈과 임선혜를 만났다.

지난 6월 영국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2021’ 아리아 부문 한국인 최초 우승 소식을 알린 김씨는 곡성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엘리트코스를 밟지는 않았지만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유럽 무대를 정복한 실력파다. 그는 2019년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차



지난 19일 광주 호남신학대서 열린 마스터 클래스에 강사로 나선 바리톤 김기훈(왼쪽)과 소프라노 임선혜.

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 ‘오페라리아 2019’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지금은 곡성 홍보대사로도 활동중이다.

KBS ‘열린음악회’를 보며 성악을 동경하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척 성악을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바리톤으로 우뚝 섰다.

그는 “시골 출신이라 무지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다”며 “곡성에서는 노래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가대 활동을 하던 중 한 세미나에서 만난 강사님이 노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 본격적으로 성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성악을 시작하고는 선생님 말을 잘 들으려 했어요. 가르침을 얼마나 내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소리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예요. 또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당연한 건데, 다른 분들이 당연한 것들을 놓치니까 제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는 마스터 클래스에 대해서는 호흡, 소리, 곡에 대한 배경지식, 곡을 풀어내는 방식 등 모든 것을 알려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줘야겠다는 마음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노래하는 방법, 공부법 등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키포인트만 뽑아 전해줄 생각입니다.”

임선혜도 “성악가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광주를 찾았다”며 “서울에는 기회가 많지만 오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노래하는 작은새’, ‘아시아의 종달새’ 등의 별명을 가진 임 씨는 조수미에 이어 세계적 명성을 쌓은 한국 출신 소프라노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바로크와

고전시대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등을 작곡 당대의 방식을 살려 연주하는 ‘고음악의 디바’로 불리며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연주자들이 무대를 즐길 때 청중이 비로소 그것을 느낀다고 확신한다. ‘저 사람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통해 보는 사람들도 힐링을 느낀다는 것이다.

“무대에 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걱정되고 떨리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을 잘 준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제가 주로 부르는 곡들은 외국곡이기 때문에 언어를 비롯해 공부해야 할 게 많아요. 외국어를 음악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담긴 힌트를 찾는 게 중요하죠.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성악가는 ‘노래로 연기하는 배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날 계획이다. 김 씨는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에 이어 독일,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극장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임 씨는 서울국제음악제, 대관령겨울음악제 등의 무대에 설 예정이다.

“만족하는 예술가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저한테 만족하는 순간 제 예술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무한한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김기훈)

“오랫동안 무대에 서고 싶지만 소프라노는 일찍 데뷔한 만큼 통연하기 힘든 직업이예요. 무대는 저에게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여 놀 수 있는 놀이터지만 때로는 전쟁같은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무대에서 내려가는 그 날 까지 후회없이 재미있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임선혜)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잔 핀트 작 '아트 브로치'



매릴리 스노우 작 '팬데믹 패러독스'

‘팬데믹 시대 예술가들의 실천’

美 작가 3명 초대, 9월19일까지 갤러리 포도나무

팬데믹 시대, 사회적 현안에 민감한 촉수를 드리우는 작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해석하고 있다.

갤러리 포도나무(광주시 남구 양림동 백서로 79-1)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전시를 기획했다.

‘팬데믹, 세 예술가의 실천’을 주제로 오는 9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갤러리 포도나무가 1년간 준비한 기획으로 캘리포니아 엘러미다 지역에 거주하는 세 명의 작가를 초대해 팬데믹 동안 진행된 그들의 예술적 실천을 탐색해 본다.

폴란드 출신 사진작가이자 교육자인 다리우스 J.고르스키는 지역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텅빈 샌프란시스코 거리와 고속도로,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들을 꼼꼼히 사진으로 기록한 ‘거리두기 연대기’ 시리즈를 선보인다.

사진 속 풍경은 지구의 종말을 그린 디스토피아 영화처럼 낯설기도 하지만 감염

을 차단하고 재앙을 피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협력이 극적으로 포착된 장면이기도 하다.

판화작가로 활동중인 잔 핀트는 길에 버려진 다양한 안경 렌즈를 수집해 만든 ‘아트 브로치’ 작품을 통해 팬데믹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작가는 대부분의 작품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선물, 친밀한 감정을 전하며 그 관계를 확장시킨다.

매릴리 스노우의 드로잉 작품 ‘팬데믹 패러독스’ 시리즈는 정사각형의 종이 위에 구조화된 원형 패턴을 반복해 그린 드로잉 작품이다. 사회적 격리 지점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활기찬 드로잉으로 전환시킨 작품으로 ‘젠(zen·선)’과 ‘탱글(tangle·엮히다)’을 합성한 젠탱글 아트는 시각적 몰입을 유도해 마음의 긴장을 이완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장치로, 마치 불교의 만다라를 연상시킨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6일부터는 서울 골든핸즈프렌츠아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미식관광 광주’ 발간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이하 재단)은 맛의 고장 광주의 주요 미식관광자원을 한 권으로 정리해 소개한 ‘미식관광 광주’를 발간했다.

재단의 ‘그런 광주 또 없습니다’ 관광책자 시리즈 중 ‘생태관광 광주’, ‘예술관광 광주’ 책자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미식관광 광주’는 ‘광주 미(美)미(味) 대동여지도’, ‘광주 7味 heal me’, ‘광주맛집(2020-2021)’, ‘광주 미식관광 특화거리’, ‘답아두면 유용할 광주 여행정보’ 등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광주 미식여행을 소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 대표 음식인 ‘광주



7미’의 유래 및 소개, 광주시 지정 ‘광주맛집(2020-2021)’, 무등산 보리밭 거리 등이 수록돼 책자 한 권으로 광주의 음식, 맛집 정보는 물론 광주 주요 관광지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재단은 발간된 책자를 구청과 유관기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바리톤 김기훈(오른쪽)의 마스터 클래스 모습.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젝트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